

경일정경

경일정경

4

남조선에서 인테리를 데려올때 대하여

- 1946년 7월 31일

1946.12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데 대하여

남조선에 파견되는 일군들과 한
답화 1946년 7월 31일

날씨가 무더운데 오느라고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동무들을 부른 것은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오기 위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무들도 알겠지만 미칠전에 진행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우리와 함께 민주조국 건설에 참가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남조선의 인테리들을 데려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새 민주조선 건설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관의 하나는 대학교원, 학자를 비롯한 인테리가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인테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운수시설을 복구정비하고 관리운영하는데서 지장을 받고 있으며 교육과 과학,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종합대학을 창립하기 위한 준비사업 정형을 보아도 인테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인테리가 부족한 것은 악독한 일제식민지통치의 후파입니다. 조선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들에 대한 차취와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민족우대화정책을 실

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사람의 절대다수가 대학이나 중학교는 고사하고 소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과거에 대학을 졸업한 조선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일본이나 만주에 가서 대학공부를 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불과 몇 명 되지 않으며 그들마저도 지금 각처에 흩어져있습니다.

당면하여 부족한 인테리문제를 해결하자면 북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다 찾아내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오는 것은 그들을 미제와 그 주구들의 탄압으로부터 구원하고 민주건국의 옳바른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인테리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과학탐구의 길이 막혀 있으며 그들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적교육의 실시와 과학탐구의 자유를 요구하는 인테리들은 학교와 연구기관들에서 축출당하거나 검거투옥되고 있으며 항시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인테리들은 진보적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북조선을 동경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종사할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새 생활의 길을 열어야 하며 그들이 자기의 희망에 따라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 문학예술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오자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제의 사축하에 리승만도당은 민주력량에 대한 탄압

에 광분하고 있으며 우리의 민주건설성과를 동경하거나 북조선으로 오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厉하게도 대로 행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테리들은 미군정통치와 반동파들의 애국애족행위를 반대하면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옳바른 인식이 부족한데로부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무들은 남조선에 나가 그곳 인테리들에게 북조선에서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적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하여서와 인테리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주고 있는데 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 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평양에 종합대학이 창립된다는 것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에게 북조선에 들어와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위한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위촉장을 전달하여야 하겠습니다.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이 북조선의 소식과 우리가 보내는 위촉장을 전달받게 되면 그들은 우리를 지지하고 적극 따라나설 것입니다.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무사히 데려오기 위한 대책을 잘 강구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그들에게 줄 려비까지 넉넉히 준비해 가지고 떠나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들어오는 인테리들 중에는 본인만 먼저 오고 가족은 후에 데려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가족들의 생활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들려야 합니다.

미군정과 남조선반동파들의 경계가 심한 조건에서 본인들은 특로로 38선을 넘어오더라도 가족들은 배를 리용하여 안전하게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기관에 지시하여

남조선에서 들어오는 인테리들과 그 가족들의 길안내를 잘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들어오는 인테리들이 자기들의 희망과 전공에 따라 앞으로 창립될 종합대학을 비롯한 교육문화기관들과 과학연구기관들에서 일하게 하고 그들의 사업을 적극 방조하여줄것입니다. 남조선에서 들어오는 인테리들이 가장 집들도 못가지고 들어오는것만큼 인민정권기관들에서 그들의 생활을 특별히 둘보아주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동무들이 남조선에 가서 경각성을 높이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맡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